

웹툰·웹드라마·웹소설... 광주서 세계 웹 콘텐츠 축제 열린다

6월 23~26일 문화전당

윤태호 작가 등 초청



지역 출신 윤태호 작가가 그린 웹툰 '미생'은 잘 만든 웹콘텐츠 하나가 폭발적인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모델이다. '미생'은

예전 같았으면 단순 만화로 취급 받았겠지만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드라마로 영역을 확장하며 전세대에 사랑 받았고 소재로 사용한 바둑 또한 덩달아 관심을 받았다.

오는 6월 광주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한 웹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6월 23~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는 '2016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이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6월 23~26일) 기간에 맞춰 열리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총 10억원(국비5·시비5억원)을 투입해 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등 다양한 종류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웹툰시장에는 13만명, 웹소설에는 8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네이버 웹드라마는 약 80편이 상영중이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유튜브, CJ E&M, 한국MCM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해 광주 웹콘텐츠 시장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페스티벌은 '크리에이터 타운', '온/오프타운', '전시회·컨퍼런스' 등으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크리에이터 타운'에서 진행되는 'DNMG(Directoe & MasterpieceGallery)'은 윤태호 등 유명 웹툰 작가가 그린 원화, 미공개 장면, 습작노트 등을 전시한다. 사람들이 즐겨보는 웹툰이 제작되는 과정, 스토리 구성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프리카TV 등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인기 BJ(BroadcastingJockey)들도 이



BJ 양명

BJ 대도서관

번 행사를 위해 광주를 찾는다. 현재 수많은 팬을 보유한 '양명', '대도서관' 등 국내외 BJ들이 배틀토크, 팬사인회 등을 펼친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BJ를 선발하는 'BJ어워드'도 열린다. 웹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크리에이터멘토링'을 통해 선배 제작자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온/오프타운'은 온라인 상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영상, 게임 등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웬만한 국내 프로야구 선수 인기를 뛰어넘는 크리에이터들을 초청해 제작이야기를 듣는 '영상제', 광주 e-스포츠대회, 청춘 토크 콘서트, 뮤직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회·컨퍼런스'는 광주스마트모바일개발지원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을 위한 행사다. 결과물을 대중에게 알릴 수



웹툰에서 드라마 등으로 확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미생'

는 전시회,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매칭과 투자유치(IR) 상담, 국내·외 전시 참가 등을 지원한다.

김택환 추진위원장은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은 문화전당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콘텐츠를 통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웹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웹 사업자와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웹드라마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

파랑새 단원 이현숙 '제1회 자랑스러운 배우상'

교육극단 파랑새 단원 이현숙(사진) 씨가 아시아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한국본부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러운 배우상'을 받았다.

아시테지 한국 본부는 매년 3월 20일 '세계아동청소년연극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아시테지 연극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 씨는 올해 신선했던 '자랑스러운 배우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4년 극단 파랑새에 입단한 이



씨는 아동극과 성인극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성과 한울', '안녕 백구씨', '말괄량이 삤삤' 등 아동극을 비롯해 '멕 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수양별곡' 등 다양한 작품 출연했다. 2009년에는 '장군 슈퍼'로 광주연극제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광주연극협회가 수여하는 광주연극상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덕령 소재 웹툰 '충장' 사이트 '미스터블루' 연재

'의병 김덕령' 장군을 소재로 제작된 웹툰 '충장'이 웹툰사이트 '미스터블루'(www.mrblue.com)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김민준 작가가 그림·글을 맡은 '충장'은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스토리 기반 문화창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지원한 작품이다.

이번 웹툰은 총 50화로 기획된 작품으로 미스터블루에서 현재 8화까지 게재됐으며, 약 1년간 연재한다.

웹툰 '충장'은 조선 중기 태평성대가 끝나갈 무렵부터 임진왜란 당시까지 그



러릴 예정이다. 역사적 등장 인물로 서산대사, 사명당, 율곡이이, 유성룡, 광재우 등이 함께 그려진다. 또한 의병장 김덕령 장군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판타지적 요소를 더한 팩션 사극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편지, 어떤 문학의 역사

함정임 칼럼



십년 전부터 잔혹극의 창시자 앙토냉 아르토의 족적을 쫓고 있다. 그는 프랑스 지중해의 항도 마르세유 출신으로 스무살 무렵에 파리로 상경하여 연극과 영화계에 입문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던 그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갈리마르사가 펴내는 문예지 'NRF'(La Nouvelle Revue Francaise)에 투고했다가 게재 거부 편지를 받았다. 문학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처럼 신춘문에 제도나 수십 개의 문학공모가 활발하게 작동되지 않는 대신, 출판사에서 연중 작품을 투고 받는다. 출판사는 투고된 작품을 정기적으로 읽고 선별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앙드레 지드나 미셸 투르니에, 파스칼 키냐르 같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신인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앙토냉 아르토는 연극인이자 영화배우, 비평가로 활동했지만, 시인으로는 문단의 공식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는 'NRF'에 시를 투고하는 한편, 소책자 형식으로 소량 자비출판해서 스스로 시인임을 세상에 드러냈는데, 문단도 독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르토는 무성영화 시대였던 당시 주목받는 젊은 배우였고, 앙드레 브르통과 함께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작성할 정도로 파리 문학예술계에서 그는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시에 대한 열광을 꺾을 수 없었고, 그것이 'NRF'에 투고 행위로 이어진 것이었다. 그는 끝내 시인으로 정식 등단을 하지는 못했지만, 투고한 시 중 한편인 '고함'은 'NRF'에 실렸다. 그런데 시(詩)란이 아닌, 편집장이 예외적으로 지면을 마련한 '편지' 속에 액자처럼 끼워진 형국이었다.

사연인 즉슨 이러하다. 'NRF'의 편집장 자크 리비에르는 투고자 아르토에게 그의 시가 게재될 수 없는 이유를 편지로 보냈다. 우리의 신춘문예나 문예지 공모에서는 당선작과 그 작품에 최종적으로 당락을 겨룬 작품들에 대한 평가를 심사평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힐 뿐 투고자들에게

낙선 이유를 보내주지는 않는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아르토의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자크 리비에르가 편지에 쓴 게재 불가 편지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11통의 서신 왕래가 이루어졌고, 그중 한 편이 'NRF'에 실리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자크 리비에르가 아르토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내용은 게재 불가지만, 시의 작가인 아르토를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아르토는 자신의 시를 해명하는 장문의 답장을 보내면서 게재 불가 사유를 청했고, 그 결과 자크 리비에르로부터 자신의 시가 게재되기에는 "서투르고, 당혹스러울 만큼 이상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을 들었다. 자크 리비에르는 아르토를 만난 지 1년 후에 사망하고, 새로운 편집장 장 폴랑이 아르토를 상대하는데, 전임자와는 달리 그는 아르토의 비상한 언어 파편들을 열렬하게 경청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르토가 시인으로 평가받은 것은 아니다.

수잔 손택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작가들은 읽히지 않기 때문에, 본래 읽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적, 지적 고전이 된다." (수잔 손택, '해석에 반대한다'). 아르토는 선전적 매독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남성증을 앓았다. 남성증이란 과도하게 편지질을 해대는 것을 말한다. 끝내 시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탓인지 그는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레프란트와 나혜석이 자화상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어갔듯이 아르토는 편지를 씌우면서 자신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증명해낸 셈이다.

아르토의 정신과 육체는 전기충격과 안정제용 마약(아편) 복용으로 해체되고,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그의 극도로 분열된 의식과 파편적인 언어를 질서정연하게 재구성하여 내놓은 철학자는 들뢰즈이다. 그의 대표적인 철학 주제인 노마디즘의 기관 없는 육체론은 바로 아르토의 파편적인 글조각들, 편지에서 비롯된다.

4월이면 신춘문예로 세상에 나온 신인 작가들이 두 번째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아생의 감각과 에너지가 품은 그들의 문장을 읽으면서 아르토를 떠올리는 것은 봄날의 환각 때문만은 아니다. 고통과 황홀이 공존하는 그들의 앞길에 사랑과 인내, 축복이 있을진저.

(소설가·동아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